

광주 대표 브랜드 상설공연 만든다

佛 '물랑루즈' 벤치마킹 ...이르면 9월부터 공연 23일 장소·콘텐츠 논의...일부선 "충분한 검토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브랜드 상설공연을 만들고, 이를 무대에 올릴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브랜드 상설공연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와 준비, 그리고 예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광주를 대표할 브랜드 상설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3일 전시공연 전문가와 시립예술단 그리고 현장 공연기획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상설공연 장소와 콘텐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의

'물랑 루즈'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과 공연장을 만들어 광주의 명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실무 논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까지 상설공연 장소와 브랜드 공연 콘텐츠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연장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문화예술회관, 빛고을 시민문화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제3의 장소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

일 계획이다.

콘텐츠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 공연물을 유치하는 방안과 함께 그동안 산발적, 개별적으로 무대에 올랐던 인기 공연들을 유니버스로 엮거나 갈라쇼 형태로 선보이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오페라단과 합창단을 비롯해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발레단, 극단, 국극단 등 8개 시립예술단이 각자의 특징점을 살려 합동공연이나 순번제 공연에 나서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1년 '자스민 광주' 등 일부 작품이 상설공연에 들어갔으나 사실상 장기공연엔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시는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광주 대표공연인 '자스민 광주'를 선보였다. 진도 씨김밥을 중심으로 시나위, 타악, 무용, 디지털 영상, 퍼포먼스를 가미한 이 공연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지역 각국 민주화 희생자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하지만 작품성이 미흡하다는 평가 등이 나오면서 결국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성공적인 공연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기획과 연출, 좋은 무대와 숙련된 배우 양성, 충분한 예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브랜드 공연과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기 보다는 지역 예술계의 현실을 먼저 진단한 뒤 이에 맞는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안전보안관 발대식 18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안전보안관 발대식 참석자들이 '안전광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늘막 2배 늘리고 홀로사는 노인 건강 보살피고

광주 광산구 '광프리카' 대책

광주 광산구가 폭염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광산구는 19일, 연일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상황실을 한시적으로 변경·운영하는 폭염대책상황실은 마을 통장과 자율방재단을 현장관리관으로 지정, 지역내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그리고 위기시대 등 폭염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광산구는 현재 37곳에 배치된 도심 그늘막을 72곳으로 2배 가량 늘리고 홀로사는 노인 300여 가구를 폭염 취약세대

로 선정, 2인 1조로 편성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건강 등을 살피기로 했다. 특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는 불우이웃 기금으로 만들어진 '광산나눔문화재단'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삼구 구청장은 폭염을 감안,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민선7기 첫 동(洞) 방문을 폭염예방,점검 활동으로 전환해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구정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의 기초는 국민의 안녕과 안전"이라며 "구민 모두가 슬기롭게 더위를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금호타이어 노사 경영 정상화 힘 모은다 이 시장-더블스타 회장 면담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블스타 차이용선 회장, 더블스타 장권화 CFO, 금호타이어 김중호 회장, 금호타이어 전진대 부사장, 조삼수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대표지회장, 하태정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 등을 면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시장은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광주 전남 시민들은 여전히 금호타이어를 향토 기업으로 여기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구의 날 기념 퍼포먼스 "육아 함께해요" 18일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린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광주디자인센터

노조 인사권 남용 원장 해임 요구 부당 지원금 문제로 송사까지

센터장 퇴진 요구와 부당 지원금 문제 등이 불거진 광주디자인센터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18일, 디자인 업체 I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소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산하 기관인 디자인센터는 2015년 9월 '지역 우수 디자인 상품개발사업' 업체로 I사를 선정하고 보조금으로 1억 2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지난해 2월 디자인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I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광고사황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당 1개 품목, 최대 5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고사항과 달리, 최대 지

원 금액을 초과한 지원금(4600만원)을 환소 조치하라고 센터 측에 요구했다. 특히 I사는 현재 디자인센터 원장이 2016년 6월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로 있던 회사여서 부적절 논란까지 일었다.

재판부는 "디자인센터가 이 사업 관련 공고와는 달리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서 "I사에 2개 품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참가 기회가 박탈돼 중소기업 역량

강화라는 보조금 지원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디자인센터 노조는 인사권 남용과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광주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디자인센터지회는 "원장이 2년여 동안 24차례 직원 전보 인사를 한 데 이어 6개월만에 또 다시 인사를 예고했다"며 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디자인센터 노조는 이미 원장 해임 건의문을 광주시에 전달했으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디자인센터 원장 등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유권자 6·13지방선거 만족도 높았다

후보 공약 인지도는 낮아 시 선관위 만족지수 90%

6·13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광주지역 유권자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광주시선관위는 18일 "최근 지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투표만족지수(VSI)를 측정한 결과 89.7%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측정지표별로는 투표소 확인 수월성(96.3%)이 가장 높았고, 투표소 접근성·투표 대기시간 적정성 순으로 좋은 평가가 나왔다. 반면 후보자 정보 인지도(83.7%)와 지지후보 정책공약 인지도(75.8%)는 다른 지표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지역별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던 서구(90.4%)에서 가장 높았고, 동구·남구·북구·광산구 순이었다.

성별 투표만족지수는 남성

(90.0%)이 여성(89.3%)보다 약간 높게 측정됐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만족지수가 높았다.

투표만족지수는 투표서비스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선거별·지역별·성별·연령별에 따라 투표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다. 광주시선관위가 투표서비스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3년 자체 개발 후 계속 활용하고 있다.

측정지표는 후보자 정보인지도, 지지후보 정책공약인지도, 1인 7표 인지도, 투표소 확인 수월성, 투표소 접근성, 투표대기시간 적정성, 투표방법 절차 수월성, 투표사무종사자 친절성, 투표소 시설이용 만족도 등 9개 지표로 이뤄졌다.

각 지표의 만족도를 백분율로 환산해 평가하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5~19일 자동응답에 의한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측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스마일장비 2대 운영
- Best Skilled 닥터 선정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